



주 최:나라현
후 원:총무성, 외무성

제 5 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
보고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

제 5 회

— 보고서 —

2014.10.27 (MON) ▶ 29 (WED)

제 5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보고서

【 목 차 】

프로그램	2
인사	3
참가지방정부 단장명부	4
실무자토의	
테마1 「지역경제의 진흥」	8
테마2 「지역만들기」	12
테마3 「관광진흥」	16
수장토의	
테마1 「지역경제의 진흥」	22
테마2 「지역만들기」	28
테마3 「관광진흥」	35
프레젠테이션	42
대표기자회견	44
신문기사	51
자료집	
◇테마1「지역경제의 진흥」	
【강사 강연자료】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61
【리저널 리포트】	
·서자바주	82
·도쿠시마현	102
·육야카르타 특별주	84
·가가와현	104
·부여군	88
·나라현	106
·푸토성	90
·니가타시	108
·후에시	94
·고세시	110
·후쿠시마현	96
·아스카무라	112
·니가타현	98
·고료초	114
·이시카와현	100

◇테마2「지역만들기」

【강사 강연자료】

모리치 시게루 〈정책연구대학원대학·정책연구센터 소장〉····· 117

【리저널 리포트】

·산둥성	132	·고치현	150
·시안시	136	·나라현	152
·웨이팡시	138	·다가조시	154
·서자바주	140	·덴리시	156
·충청남도	142	·가시하라시	158
·후쿠이현	144	·이카루가초	160
·미에현	146	·시모이치초	162
·와카야마현	148		

◇테마3「관광진흥」

【강사 강연자료】

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대표·정부인정 관광카리스마〉··· 163

【리저널 리포트】

·장쑤성	168	·아오모리현	198
·안후이성	170	·야마나시현	200
·허난성	174	·나가노현	202
·간쑤성	176	·기후현	204
·린이시	178	·시즈오카현	206
·둥잉시	180	·교토부	208
·서자바주	182	·돗토리현	210
·말라카주	184	·시마네현	212
·경기도	188	·구마모토현	214
·공주시	190	·나라현	216
·서산시	192	·다자이후시	218
·경상북도	194	·나라시	220
·투아티엔후에성	196		

■ 2014/10/27(Mon) ————— 호텔 닛코나라·나라 로얄호텔

- 14:00 - 16:30 양자회담
- 17:00 - 18:30 익스커션① 【고후쿠지 절 국보관】
- 19:00 - 20:30 웰컴리셉션

■ 2014/10/28(Tue) ————— 호텔 닛코나라

- 08:30 - 12:00 오리엔테이션·실무자토의
- 12:00 - 13:00 중식①
- 13:00 - 13:30 개회식
- 13:30 - 14:10 프레젠테이션
- 14:10 - 17:40 수장토의
- 17:40 - 18:05 기념촬영
- 18:15 - 18:50 대표기자회견
- 19:00 - 21:00 지사 초청연회

■ 2014/10/29(Wed) ————— 호텔 닛코나라

- 08:00 - 12:00 익스커션② 【쇼소인전·대고지키전】
- 12:00 - 12:50 중식②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제 5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을 개최함에 있어 개최지의 지사로서 환영 인사말을 드리겠다. 일본이 탄생한 시대에 유라시아의 문명이 도래된 것이 지금의 나라지역이다. 그 당시의 역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롭게 글로벌화 하는 동아시아에 있어 이러한 형태의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발상 아래 이 모임을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 지방정부에는 중앙정부나 국가처럼 외교교섭, 전쟁,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역을 진흥시킬까, 주민의 복지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 회합에서도 그것이 공통의 과제를 실감하였다.

참가해 주신 지방정부는 대규모 주나 성도 있지만 작은 마을도 있는데 주민과의 거리가 가깝고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은 공통된 점인 것 같다.

이번에는 7개국의 41지방정부가 참가해 주셨고 새로이 미얀마의 마그웨이 지방정부로부터 장관께서 게스트로 참가해 주셨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도 입회인으로 참가해 주셨다. 다시 한번 수많은 지방정부 여러분들의 참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체제가 큰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하며 인사말을 대신한다.



이시하라 노부오 일반재단법인 지방자치연구기구 회장

오늘날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그래도 동아시아는 가장 활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아시아 각국의 지방정부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문제를 상호 보고하며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방정부의 주민을 위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도 연결되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국가의 문제, 지방의 문제에 관여해 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곤란에 직면해 있는데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행복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 관계자가 각자의 문제를 진솔하게 터놓고 교류한다는 것은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임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터득하였다.

이번에는 '지역경제의 진흥' '지역만들기' '관광진흥'이라는 3가지 테마에 대하여 관계 지방정부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일본의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지금 인구감소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지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있어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오늘의 주요 테마가 해결된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진솔하게 토론함으로써 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Name	Organization
Anhui Province	
LU, Xiaomei	Director, International Friendship Relations Division
Shandong Province	
REN, Chaorong	Deputy Counsel, General Office of CPC Shandong Provincial Committee
Weifang City	
YU, Weijie	Director, Weifang Bureau of Tourism
Dongying City	
CHEN, Xinjun	Deputy Director, Dongying Bureau of Tourism

Republic of Indonesia

Name	Organization
Province of Yogyakarta Special Region	
Kristiana Swasti	Head, Women and People Empowerment Board

Malaysia

Name	Organization
Melaka State	
Roslan Bin Ibrahim	Deputy State Secretary (Development)

Republic of Korea

Name	Organization
Gyeonggi-do Province	
PARK, Gyu Cheol	Deputy Director, Tourism Division
Chungcheongnam-do Province	
HEO, Seung Woog	Vice Governor
Gongju City	
HONG, Gi Seok	Head, Tourism Division
Seosan City	
KIM, Jung Kyum	Department Manager, Culture And Tourism Department
Gyeongsangbuk-do Province	
HONG, Seog Pyo	Deputy Director, Divis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Name	Organization
Phu Tho Province	
VI Trong Le	Vice Chairman, Phu Tho People's Council
Thua Thien Hue Province	
NGUYEN Dung	Vice Chairman, Thua Thien Hue People's Committee
Viet Tri City	
DAO The Dung	Vice Mayor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Guest)

Name	Organization
Magway Region Government	
Kyi Min	Minister, Ministry of Finance

Japan

Name	Organization
Aomori Prefecture	
HORI, Yoshiaki	Team Leader, Bureau of Strategic Tourism and International Affairs, Marugoto Aomori Information Broadcast Team
Fukushima Prefecture	
KAGEYAMA, Hiroshi	Office Director, Osaka Office
Niigata Prefecture	
SAITO, Takahiro	Staff,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Fukui Prefecture	
DOUSAKA, Tsukasa	Director, Transportation and City Development Division
Yamanashi Prefecture	
YOKOUCHI, Shomei	Governor
Nagano Prefecture	
NOIKE, Akito	Director General, Tourism Department
Shizuoka Prefecture	
NAMBA, Takashi	Vice Governor
Mie Prefecture	
TANIAI, Ryu	Deputy Director General, Tourism and International Affairs Bureau
Kyoto Prefecture	
HIRAI, Yuko	Director General for Tourism Policy, Department of Commerce, Labor and Tourism
Wakayama Prefecture	
NODA, Hiroyoshi	Director General, Planning Department
Tottori Prefecture	
MORITANI, Kunihiko	Director General, Culture, Tourism and Sports Bureau
Shimane Prefecture	
ISHIKAWA, Atsushi	Senior Chief Coordinator, Tourism Promotion Di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Industry and Labor
Tokushima Prefecture	
KAWAGUCHI, Masamichi	Bureau Hea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partment
Kagawa Prefecture	
ASANO, Koji	Assistant Director General, Commerce, Industry and Labor Department
Kochi Prefecture	
TAKEZAKI, Yukihiko	Director, Nankai Trough Earthquake Policy Division, Department of Disaster Management
Nara Prefecture	
ARAI, Shogo	Governor
Tagajo City	
KIKUCHI, Kenjiro	Mayor
Niigata City	
YAMAGUCHI, Hideki	Vice Mayor
Dazaifu City	
OTA, Seizou	Section Manager,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Economy
Tenri City	
NAMIKAWA, Ken	Mayor
Kashihara City	
MORISHITA, Yutaka	Mayor
Gose City	
NAKAMOTO, Toshio	Chief of Section, Commerce and Industry Section
Ikaruga Town	
KOJO, Toshishige	Mayor
Asuka Village	
MORIKAWA, Yuichi	Mayor

Name	Organization
Koryo Town	
YAMAMURA, Yoshiyuki	Mayor
Shimoichi Town	
SUGIMOTO, Tatsuaki	Mayor
Nara Prefectural Assembly	
IOKA, Masanori	Vice Chairman
TSUBUTANI, Tomoshi	Chairman, Committee on Economic and Labor
HARI, Mayumi	Member, Special Policy Committee on Tourism Promotion

개요 -Overview-

The 5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참가지방정부	인도네시아 : 욱야카르타특별주 베 트 남 : 푸토성, 푸토성 비엣찌시 일 본 :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나라현, 나라현고세시, 나라현고료초 미 안 마 : 마그웨이 지방정부 (게스트)
강 사	모타니 고스케 (주) 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참가지방정부의 리저널 리포트의 개요



베트남, 푸토성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3가지 비약스텝의 실시

- ① 주요 사회경제 인프라에 투자자본의 투입
- ② 인재육성 추진
- ③ 관광개발 촉진

푸토성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정세도 안정되어 있다. 정부는 새롭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내 놓아 1인당 GDP를 2,000~2,200미달러로 인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22,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일본, 나라현

현내 창업가의 육성과 여성의 사회진출 추진

- 나라현은 현내에 취업의 장이 적고 현내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더불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실시.
 - ① 창업기운을 조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콘테스트'의 실시
 - ② 창업가의 창업개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설치, 운영', '창업가와 창업지원기관의 네트워크화', '저금리융자제도' 등
 - ③ 창업가 마인드의 양성, 교육
- 여성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실시.
 - ① 국가 기관과 연계한 취업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 ② 여성 창업가의 양성,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번역자 양성
 - ③ 육아휴업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창설



일본, 고료초

농업학원의 개강

취농에 의욕을 가진 일꾼의 육성, 확보의 일환으로서 2014년도부터 '고료초 농업학원'을 개강. 마을의 신규 취농자를 확보하여 직매소에의 출하 및 농산물의 브랜드화 등 본격적인 생산유통을 지향한다.



일본, 도쿠시마현

차세대 임업 프로젝트

본 현에서는 풍부한 삼림자원을 배경으로 임업, 목재산업의 진흥과 산촌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금까지 수 차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업 재생 프로젝트'에서는 고성능 임업기계를 사용한 간벌재의 생산과 합판으로의 이용, 200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업 비약 프로젝트'에서는 간벌재의 증산과 저질재의 MDF(중밀도섬유판) 이용을 추진함으로써 간벌재의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나무 밀동에서 가지까지' 이용하는 가공체제가 이제 막 갖추어졌다.

2011년도부터는 자원이 성숙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간벌과 더불어 주벌을 포함한 현 생산재의 생산 및 소비량을 향후 10년간 배증시킬 것을 전략목표로 내건 '차세대 임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고세시

취업의 장 확보와 지역산업의 강화

- 고세시는 사업소(일터)가 적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인구의 감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 안정된 취업의 장 확보와 지역산업의 강화를 통해 인구유출의 저지, UI턴 촉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중점시책을 실시하여 자주재원의 확보와 의무적(부조비) 억제에 노력한다.
 - ① 게이나라와 자동차도 고세IC 주변의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추진.
 - ② 기업유치를 추진하여 지역산업의 강화와 취업의 장 창출을 지향.
 - ③ 경작포기지를 활용하여 고세 브랜드 상품을 검토 창출
 - ④ 풍요로운 관광, 자연자원 등 고세시의 매력을 홍보하여 관광객유치를 통해 활성화 도모.



일본, 가가와현

'가가와현 산업성장전략'에 기초한 시책의 전개

일본의 경제는 소비세율의 인상으로 인한 사재기 수요에 따른 반동으로 소비가 일시 주춤했으나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보면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가가와현 산업성장전략'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희소당과 생산량 전국 1위의 올리브 등 가가와현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활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산업의 육성 및 집적
-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전개, 인재의 육성, 확보 등 각 분야에 공통된 시책



인도네시아, 욱야카르타 특별주

지역개발계획위원회

욕야카르타 특별주 2012~2017년의 중기개발계획(RPJMD)의 책정

- ①조직기반의 강화와 지역경제 구조에 기초한 관광업과 사회변영을 위한 지역 가능성의 강화.
- ②경제 탄력성을 향상시킨다.
- ③반응성이 높고 적응가능한 지역경제 통치체제를 구축한다.
- ④투자, 특히 필수불가결한 비정부, 민간투자를 지원한다.



강사코멘트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역사도시의 개발과 보존)

나라는 옛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공장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택을 해왔는데 그것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어떻게 개발을 추진해 갈 것인가 역사자산을 보존하면서 발전해 가려는 지역의 참고가 될 것이다.

(고도성장 후의 일본의 지역산업)

고료초에서는 농업(가지, 딸기)도 양말산업도 고도성장을 이룩한 일본에서 살아남았다. 제품을 특화하여 단가가 비싸도 잘 팔리는 제품으로 이행해 감으로써 성공한 사례다.

(지역자원을 살린 산업진흥)

도쿠시마는 광대한 산림을 활용하여 임업의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임업은 경비가 비싸 손쉽게 동남아시아에 대항할 수 없으나 연구와 노력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뒤쳐진 임업과 농업의 활성화에 좋은 본보기다.

(옛부터 발전한 지역의 과제)

고세시는 발전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새로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적어 성장이 둔화해 버렸다. 또한 옛부터 관광지이기도 하나 새로운 일꾼이 없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사라져 젊은 세대의 활력이 부족하다는 전형적인 일본의 과제도 안고 있다. 현재 지역의 고등학교와 인재육성에 대하여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순환하는 경제성장)

산업의 성장은 순환한다. 많은 부분에서 일본은 일찍 발전했으나 임업 등은 이미 정체되고 이번에는 그것이 재생을 시작하여 아시아 각국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 중에는 사라진 것과 살아 남은 것이 있다. 각국의 산업은 직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역경제를 젊어질 인재)

도시로의 인재 유출은 지방도시가 항상 직면하는 과제다. 또한, 인재에 관해서는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면 잇달아 매니지먼트나 마케팅, 디자인, 상품개발 등이 중요해져 그것을 젊어질 인재를 지역에서 어떻게 육성하는가 하는 과제도 생기게 된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도입)

욕야카르타는 옛 시가지가 남아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나 빈곤한 여성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마이크로 파이낸스(1건당 50달러 정도 대출)가 도입되었다. 관광지에서 공예품도 많고 유사한 상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나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실시함으로써 상품의 질을 높이는 지도를 함과 동시에 지역에 이익을 남길 만한 산업조성이 실시되고 있다.

전통공예와 관광 등 지역산업을 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산업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의 신용금고 등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 소액용자의 니즈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수법을 실시해 갈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참가지방정부	중 국 : 산둥성, 산둥성 웨이팡시 한 국 : 충청남도 일 본 : 후쿠이현, 와카야마현, 고치현, 나라현, 나라현덴리시, 나라현가시하라시, 나라현이카루가초
강 사	모리치 시게루 정책연구대학원대학·정책연구센터 소장

참가지방정부의 리저널 리포트의 개요



일본, 와카야마현

‘미래로 비약하는 활기찬 와카야마’의 실현

‘안전과 안심’의 정책, ‘미래에의 투자’ 등 2가지 정책을 축으로 기업과 현민 한사람 한사람이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를 추진한다.

- ① ‘안전과 안심’ 정책
 - 방재 감재대책의 추진 ·질높은 의료의 확보와 건강증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사회의 구축 ·생활환경의 정비와 치안확보
- ② ‘미래에의 투자’ 정책
 - 기노쿠니 와카야마 국민체육대회를 목표로 매진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강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매력넘치는 지역만들기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 인프라 등의 정비 ·교육과 문화의 진흥



일본, 고치현

난카이 해구지진 대책의 추진

- 동일본대지진의 교훈과 최선의 지견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피해 상정을 토대로 ‘최대급(L2)과 ‘발생빈도가 높은 일정 정도의 규모(L1)’가 다른 2개의 지진을 전제로 하드, 소프트의 양면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현의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난카이 해구지진 대책추진본부’에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책정된 난카이 해구지진 대책 행동계획을 추진하면서 PDCA를 통한 끊임없는 재고를 하고 있다.
- 현재 2013년도부터 3개년 제 2기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쓰나미 피난로와 피난장소, 쓰나미 피난타워 등 ‘생명보호’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피난소 확보와 응급구조기관의 활동거점 정비 등 ‘생명보호’ 대책을 본격화 시키고 있다.



일본, 나라현

산간부의 취락재생을 통한 마을조성

- 나라현의 최남부에 위치한 도즈카와무라에서는 2011년의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일찍이 과소화, 고령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던 마을에서는 재해로부터의 복구, 부흥을 계기로 취락의 유지, 재생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①지역의 자재를 사용한 가설주택, 전통양식으로 지은 부흥모델주택, 취락경관을 배려한 부흥주택의 건설
 - ②마을의 미래상을 의논, 검토하는 부국 횡단적인 마을내 회의 발족
 - ③앞으로의 마을조성으로 이어지는 ‘마을의 축 만들기’ 사업의 실시
- 나라현은 산간부 취락의 유지, 재생 모델이 되는 이러한 시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 덴리시

지역과 더불어 추진하는 발신력을 가진 지역의 활성화

덴리시에는 역사, 문화자산, 자연환경 등 특징적인 자원이 많으나 지역의 활성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전국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것과 조합하거나 손을 뽐으로써 시를 대표하는 것으로 발전시킬만한 자원도 있다. 이러한 것을 살려 산업진흥, 지역의 활성화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①구역별로 지역만들기협의회를 설치하여 활성화책을 입안·실시
- ②시의 활기거점만들기
- ③정보 발신력의 강화



일본, 가시하라시

의료·교통·관광 각 시책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

- 시의 중심부에 현립 의대가 있어 의료와 의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만들기에 적합하다.
- 이용율의 저하에 따른 노선버스의 감편으로 공공교통 공백지역이 확대 경향에 있다.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빈집의 증가로 역사적 경관의 보전 등이 우려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 ①숙박기능과 산책로의 정비에 따른 의료 투어리즘의 환경정비
 - ②공공교통 네트워크의 재편과 새로운 이동수단의 사회실험
 - ③빈집화 된 마차야 건물의 활용과 역사적 경관의 보전



일본, 후쿠이현

후쿠이현과 후쿠이시의 공동 ‘현도 디자인 전략’의 책정

- 호쿠리쿠 신칸센, 마이즈루 와카사 자동차도, 중부 종관자동차도의 정비 등 후쿠이현을 둘러싼 고속교통체계가 크게 진전되어 광역적인 교류촉진을 추진할 환경이 정비되어 가고 있다.
- 현내 시정촌의 관문인 후쿠이시가 현도로서의 매력을 높이고 경제, 관광, 문화면에서 현내 각지를 리드하여 후쿠이현 전체의 도시력을 향상시켜 갈 필요가 있다.
- 현도의 지역만들기에 대하여 현과 시가 현도의 장래상을 공유하여 구체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점을 가지고 도시의 재설계를 구상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나갈 현도의 지역만들기 지침이 될 ‘현도 디자인 전략’을 책정하였다.



일본, 이카루가초

이카루가초 협동하는 지역만들기 추진

-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등 사회정세가 크게 변화해 가는 가운데 공적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다양화하여 종래의 균일적인 공적 서비스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으나 어려운 재정상황과 인적상황 하에서 공적 서비스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 2011년에 책정한 제 4차 이카루가초 종합계획에서 '협동'을 중요한 테마의 하나로 내걸고 새로운 공적 서비스의 수행자로서 주민과 행정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 분담하면서 연계, 협력하여 공공적 또는 공익적 과제를 해결해 가는 '협동하는 지역만들기'를 추진해 갈 방침을 세워 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산둥성

살기 좋고 활기 넘치는 지역만들기

산둥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제 12차 5개년 계획'의 작성·실행 및 '제 13차 5개년 계획'의 검토개시
- ②지역의 협동발전
- ③산업구조의 조정과 진화, 인프라 정비
- ④개혁의 전면적 추진
- ⑤사회사업,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중국, 웨이팡시

주청시 공룡문화관광구(백악기 지질공원) 공룡화석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공룡화석 관광개발

주청시(諸城市)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화석군과 발자국 화석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룡의 화석이 풍부하게 출토되어 국토자원부로부터 '중국 용성'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유네스코의 전문가팀에 의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질경관'으로 인정.

주청시에서는 세계 수준의 자원을 보호·활용하기 위해 공룡문화관광구 프로젝트를 책정.

동 프로젝트는 주청시 용도가도에서 실시, 계획총면적은 28km², 그 중 중심구역의 면적은 9.45km², 투자총액은 약 60억위안.



한국,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 기존 공간중심의 마을만들기를 사람 및 공동체 중심으로 확대하고 '생산', '정주', '여가'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
 - 살기좋은 정주여건
 - 지속가능한 생산, 경제활동
 - 수준높은 문화여가 생활
- 침체되어 있는 마을은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통해 새로운 마을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 마을만들기 경험이 있는 마을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육성하여 미래에 대해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강사코멘트



모리uchi 시게루 정책연구대학원대학·정책연구센터 소장

(재해에 대비한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

재해에 대해서는 상정 외를 없애는 구상력을 축적하여 상정 내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때 상정되는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할지가 중요하다. 그후에 불가피한 상정 외의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시에 있어서의 물류 확보)

재해시의 용지는 가설주택용뿐만 아니라 구원구호활동용과 구원물자배송거점용 등 다양한 용도에 필요. 방재계획에는 '필요'라고 적혀 있어도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중요한 과제다.

(과소지의 고령화와 취약재편)

과소지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척되어 쇼팽이나 의료 등 생활 서비스 유지를 위해 집약시키지 않을 수 없어 취약재편도 요구되나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있다. 장래상을 염두에 둔 나라현과 도즈카와무라의 복구 활동은 참고가 된다.

(지역력의 결집과 해외에의 어프로치)

후계자를 확보하여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를 하려면 모두를 행정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참가하려는 자세도 중요하다. 또한, 해외관광객이 가진 일본의 정보가 순환하여 일본인에게 전달되어 활성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해외 마켓에의 어프로치 등 검토해야 할 점은 많다.

(지역의료의 네트워크)

재해시 또는 고령화가 진척되는 도시에서 의료기관의 인력부족은 시급하다. 대규모 병원에서 지역의 의사까지 얼마나 네트워크화 할지 그에 맞춰 교통을 어떻게 정비해 갈지가 최대 관건.

(산둥성의 발전)

산둥성은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고도성장기의 후유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과제가 있으나 신속과감하게 정책을 전개하는 자세는 꼭 배워야 할 점이다.

(한국의 선진적인 활동)

일본보다도 합계특수출생률이 낮은 한국에서는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시정촌 합병을 추진하여 기업을 유치한다, 병역면제 방법으로 젊은 의사를 지방으로 영입한다, 온돌문화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에게 공동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 등이다. 한국은 수도기능 이전도 포함하여 선진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인구감소대책에 대하여)

지방의 농촌지역과 어업지역에는 고수입 고용이 있어도 교육과 오락, 문화와 같은 생활서비스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있다. 한편, 대도시 근교에서는 인구감소 이상으로 생산액이 저하된 지역도 많다. 이러한 문제에 각각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매력 만들기과 홍보)

지역 만들기란 매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경관, 역사, 생활 서비스 등 매력을 느끼는 점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을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적인 시도를 실시하는 지역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p>참가지방정부</p>	<p>중 국 : 안후이성, 산둥성 둥잉시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한 국 : 경기도, 충청남도공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경상북도 베 트 남 : 투아티엔 후에성 일 본 : 아오모리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교토부, 시마네현, 나라현, 후쿠오카현다자이후시</p>
<p>강 사</p>	<p>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대표·정부인정 관광카리스마</p>

참가지방정부의 리저널 리포트의 개요



중국, 둥잉시

둥잉 에코 투어리즘 발전촉진 활동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계획을 통해 특색있는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간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6+10 관광지 프로젝트, 관광객 수용 시스템의 일원화, 여행사의 브랜딩 전략의 추진, 경쟁력 있는 여행시장의 체계 마련, 둥잉시의 관광 브랜드인 '황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용이 솟아오르는 곳·둥잉'의 홍보, 생태계와의 공존·지속가능한 발전을 컨셉으로 하는 관광 경제 모델 형성 등. 둥잉 에코투어리즘을 신속하게 실현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리조트지를 목표로 한다.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역사적, 문화적 발전에서 본 관광프로모션

현재 말라카에는 마을 각지에서 문화, 풍습, 사적, 종교적 축제, 전통 축전 등 여행자들에게 제공할 만한 것이 풍부하다. 경제성장(GDP)에 크게 공헌할만한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
○매년 100만명의 여행객 증대(2013년의 여행객수는 1431만명으로 2014년에는 1500만명의 여행객수를 전망).
○2014년에는 여행객의 말라카에서의 평균체제기간을 3박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 목표



한국, 경상북도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인 백두대간 중 천혜의 산림자연자원으로 이루어진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접경지역을 철도노선과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융합형 창조관광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 빼어난 자연경관을 간직함에도 교통불편으로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 상황을 창조적인 마인드로 관광자원화 하여 이제는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음
(경상북도 봉화군: 인구 4만명, 재정자립도10.5%, 노인인구비율 30.3%)



베트남, 투아티엔 후에성

'투아티엔후에 관광산업의 발전'

- ①역사적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관광목적지 투아티엔 후에'를 브랜딩함으로써 후에시를 축으로 하는 '후에 관광산업'을 형성
- ②시장을 구분화하여 각 시장(국내, 국외)을 겨냥한 관광 프로모션 전략을 책정
- ③투아티엔 후에성 관광 프로모션의 브랜딩 과정에서 관계자의 참여를 촉진

투아티엔 후에성은 수많은 글로벌 관광단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관광 발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이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목적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 지역의 관광산업을 전문화하여 관광전략에 있어서의 약점과 프로의식의 결여를 개선하기 위해 또 관광산업을 촉진할 만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 투아티엔 후에성은 국내의 각 지방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달리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관광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토대로 종합 관광 프로모션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국, 공주시

오고 싶은 공주, 다시 찾고 싶은 공주

- 백제의 고도 공주에는 오랜 역사가 만들어 낸 문화가 곳곳에 숨어있음
-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공주의 다양한 명소를 소개
- 한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공주를 만들고자 아래의 중요 시책을 실시
 - ①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백제를 만나다
 - ②사계절 축제로 즐긴다
 - ③한옥마을 문화체험
 - ④천천히 걸어도 좋은 길 - 공주의 명품산책길



일본, 아오모리현

매력적인 관광지 만들기를 통한 지역 브랜드의 확립

아오모리현 관광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규정한 전략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아오모리만의'를 강하게 인상짓는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지역브랜드의 확립을 지향한다.



일본, 나가노현

산악고원을 활용한 세계수준의 체재형 관광지 만들기

- 나가노현은 일본 유수의 산악현이다. 웅대한 산악과 상쾌한 고원, 아름다운 경관, 질 좋은 설질의 스노리조트,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온천 등은 나가노현의 자랑거리로 '산악고원을 활용한 세계 수준의 체재형 관광지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NAGANO 모빌리티' (트랙킹과 사이클링 등의 액티비티를 즐기며 이동 자체를 즐기는 새로운 여행스타일)의 구축, '스노리조트 NAGANO'의 추진 등에 힘쓰고 있다.
- 등산객의 증가에 따라 조난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객의 안전대책, 독자적인 산악 가이드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인연맺어주기 지역 시마네'의 관광객 유치전략

2012년은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서 '고지키'가 편찬된지 1300년, 2013년은 시마네현 이즈모시에 있는 '이즈모타이샤' 신사가 60년만의 천궁(헤세 대천궁)을 한 역사적인 해였다. 그를 기념하여 '고지키'와 '니혼쇼키', '이즈모노쿠니 후도키'에 묘사되기도 하고 현재까지 시마네에 전해 내려오는 역사유산과 전통,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현과 시정촌, 경제계가 공동으로 2010년부터 4년에 걸쳐 '신들의 지방 시마네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2013년도부터는 '인연맺어주기 지역 시마네'를 슬로건으로 관광객 유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안후이성

'당모국제마을의 중불공동관광사업' 우호도시를 활용한 공동관광진흥사례

당모(唐模)는 안후이성 남부의 황산시 휘주구 잠구진에 위치한 고민가다. 그 역사는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휘주문화의 향기를 지금에 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안후이성은 우호도시인 프랑스의 프랑슈콩테 지역과 공동으로 관광진흥에 힘써 당모국제마을 공동관광사업을 실시. 당모마을의 민가 양식과 자연, 문화환경을 보호하면서 '프랑스 민속'과 고민가를 융합시킨 농촌여관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였다. 그로써 양 도시간의 교류 및 협력분야의 확대, 당모관광지~황산관광구역의 지명도 향상 등 경제효과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였다.

※프랑스 민속:프랑스민속협회는 농촌의 바캉스용 별장과 지역 주민의 별장을 관광객들에게 대여하여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중에서 인기있는 장소를 선발하여 상품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프랑스 민속'. 현재 협회에 소속한 민속은 5만 8000건, 연간 영업이익은 12억 유로.



한국, 경기도

체류형 국내·외 관광객 유치

-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추구
 - 캠핑장 활성화, 가족 친화 상품 개발
 - 우수 관광프로그램 및 시설[품질인증제]추진
 -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활성화
- 지역단위 민·관협력 모델 시도
 - 민·관 관광마케팅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공동 마케팅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일본, 다자이후시

체류형 관광시책

다자이후시는 다자이후 덴만구와 큐슈국립박물관, 다자이후유적 등 3곳의 특별사적과 5곳의 국가지정사적 등 역사적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76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평균 체재시간은 168분(2012년 11월 조사)으로, 현재의 다자이후 덴만구 한곳에만 집중된 통과형 관광에서 시내를 주유하는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여 체재시간의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관광 및 그에 따른 관련산업의 활기로 이어질만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 서산시

서산시의 관광진흥과 마케팅 전략

서산은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관광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시책을 실시함

- ①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세계 테마파크 조성
- ②교황방문 해미읍성 및 순교성지 세계적 관광명소화 사업,
- ③해외 관광객 유치 및 국제관광교류사업
- ④체류형 관광활성화 사업
- ⑤국내 관광객 유치 및 관광브랜드 이미지 구축사업
- ⑥백제 내포문화권 개발을 통한 문화재 복원 및 보존으로 역사적 관광자원화 추진



일본, 야마나시현

야마나시현의 관광전략

- 야마나시현에서는 2004년 2월에 '관광입현 후지의 지방 야마나시'를 선언하고 관광진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부를 설치.
- 2009년에는 산학관이 연계하여 관광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사단법인 야마나시 관광추진기구를 설립.
- 또한, 2011년 12월 '환영과 환대 야마나시 관광진흥조례'를 제정. 이 조례에 기초하여 2012년 3월에 '야마나시 관광추진계획'(계획기간 2011~2018)을 책정.
- 현재 동 계획에 기초하여 '환영과 환대 전략', '지역자원활용전략', '해외관광객 관광전략' 등을 축으로 관광시책을 전개.



일본, 나라현

외국인관광객 유치촉진에 대하여

- 2013년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1,00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하였다.
-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일본 전국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아들일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 나라는 1300년전 일찌기 헤이조쿄에 도읍이 있었던 시대, 주목할 만한 국제성을 갖추고 있었다.
-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헤이조쿄 시대를 방불케 하는 또 그 후에 더욱 발전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2020년을 맞이함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것이다.



일본, 시즈오카현

신 골덴루트의 형성

- 일본과 해외 각국이 지방간 관광교류를 촉진함에 있어 해외로부터의 방문객 수용의 핵심이 될만한 지역뿐만 아니라 복수 지역에 걸친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중앙 일본 지역에는 후지산을 비롯한 세계 수준의 관광자원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고 지방공항을 이용하여 새로운 광역 관광루트 '신 골덴루트'를 형성한다.



일본, 교토부

교토부 및 간사이 광역연합에 있어서의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교토부의 관광진흥은 교토부의 독자적인 활동과 아울러 간사이 광역연합 광역관광·문화진흥국의 사무국도 담당하고 있어 광역적인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교토부〉

- 2013년 교토부의 외국인 숙박객수는 115만명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
- 외국인 숙박객수의 98.3%가 교토 시내에 숙박
- 2020년의 도쿄 올림픽을 겨냥하여 더 많은 해외관광객의 유치촉진 활동 실시
 - 해외 프로모션과 간사이광역연합, 근린 부현과 연계한 미디어에의 교토관광 홍보
 - 부 내의 모든 숙박시설에서의 24시간 다언어 콜센터 운용과 무료 Wi-Fi환경의 정비 등,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환대환경의 정비
 - 국제회의 등 컨벤션 유치

〈간사이광역연합〉

- 간사이광역연합 11구성 부현에서 공동으로 인바운드 사업을 전개
- 세계적으로 'KANSAI'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과 정보 제공
- 방일외국인 관광객의 간사이 방문률 33.3% 방문외객수 약 345만명 (2013년도)



강사코멘트



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대표·정부인정 관광카리스마

(관광개발 및 지역자원의 활용과 자연보호의 균형)
개발수입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활용 수입 내에서 보전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장기개발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

(상품의 브랜딩)
관광상품 개발에 있어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품질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관광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고객만족도의 중요성)
사고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요구받는 것은 지역 본래의 힘이다. 지역 본래의 힘은 고객만족도를 높여 관광객으로부터 신용과 신뢰관계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배양된다.

(지역내외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진흥)
지역내외가 연계하는 최대의 이점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복합적으로 매칭시킴으로써 새로운 창조적인 것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상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매력을 이끌어내면서 그 지역이 아니면 안되는 특이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계에 있어 중요한 관건은 공통의 테마와 컨셉을 갖는다는 것이다. 공통의 테마와 컨셉이 있으면 공통된 스토리가 탄생한다. 거꾸로 그것을 토대로 관광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브랜드를 공유할 수 없다.

(품질보증제도)
품질보증제도는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질이 좋다고 보증할 뿐만 아니라 질을 계속하여 향상시키는 경영노력을 촉진하는 인증제도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인바운드의 추진)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관광객이 모이지 않는다. 인바운드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관광객 입장에서 그 지역을 여행하는 이유나 목적, 필연성이 없으면 관광객은 움직이지 않고 마켓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체재형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쓰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시간을 쓰게 하는 이유'가 필요하다.

(관광진흥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지향해야 할 성과)
최종적으로는 '관광객 수'보다도 '매출'과 '이익'이 중요하며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관광객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객 단가를 올려야 한다. 객 단가를 올리려면 관광객이 장시간 체재하게 할 만한 이유와 목적이 필요하다. 갈 이유와 목적, 필연성과 더불어 시간을 쓰게 하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관광진흥에 있어 요구되는 지역의 개성과 지역성)
관광객에게 제시해야 되는 것은 지역의 개성과 지역성 그 자체다. 자연환경에서는 다른 관광지와 차이를 둘 수 없지만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는 지역의 개성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다. 여행이란 이문화 체험이며 비밀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일상이 그 지역에 가는 이유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지금만' '여기만' '당신만'을 이라는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시하여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에 가는 목적, 이유, 필연성을 이끌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참가지방정부	인도네시아 : 욱야카르타특별주 베트남 : 푸토성, 푸토성 비엠티시 일본 : 후쿠시마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나라현, 니가타현니가타시, 나라현아스카무라, 나라현고료초 미얀마 : 마그웨이 지방정부 (게스트)
강사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강사 강연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국가의 산업은 직선적이 아니라 순환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먼저 발전한 곳은 반드시 정체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발전하기 시작한 곳에도 반드시 정체하는 분야가 나타난다. 그리고 정체 속에서 다음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 오전의 실무자 토의에서는 그러한 점이 해결된 듯한 인상을 받았다.

아시아 각국의 1980년 이후의 1인당 GDP의 추이를 보면 정체한 일본과 급속하게 진전하는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대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 각국에 앞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당시 일본의 경쟁상대는 구미뿐이어서 일본인의 섬세함과 근면함으로 대항할 수 있었다는 행운이 있었다. 그에 비해 현재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각국은 먼저 성장한

동아시아 각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그러나 경제는 한나라의 힘만으로 신장해 가는 것이 아니다. 먼저 풍요로워진 국가와 지역이 뒤로 산업을 이양해 감으로써 순서대로 풍요로워진다. 그것이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아시아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사람들은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이 자란 곳에 공헌하려는 마음이 강해 해외에서 교육과 연수를 받은 후에는 자국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이 아시아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아시아 각국이 안고 있는 인구문제에는 인구증가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의 2가지로 나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지에서는 증가일변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지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전체로서는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는데 거꾸로 도쿄는 인구감소기를 거친 후의 재집중화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성장이 빨라 일본이 걸어온 길을 보다 짧은 기간에 걸어갈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경기대책에 의지한 결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늦어 어느 지역이나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게 되었다. 각국은 산업을 활성화시켜 인구가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단계를 탈출하면서 안정된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하기 바란다. 그를 위한 해결책은 덴마크와 프랑스처럼 상품을 브랜딩하여 좋은 것을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적절한 인건비를 실현하여 세금은 어린이들을 기르고 교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미얀마의 교육무상화 등 발전단계에서 이미 거의 이룩한 나라도 있다. 사람을 교육하고 적절한 급여를 지불하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살아남으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일본 및 아시아 각국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수장토의 참가자 여러분



인도네시아, 욱야카르타특별주
Kristiana Swasti
여성·지역강화위원회 위원장



일본, 나라현
마에다 쓰토무
부지사



베트남, 푸토성
VI Trong Le
인민평의회 부위원장



일본, 나라현
나카 고지
산업·고용 진흥부장



베트남, 비엠티시
DAO The Dung
부시장



일본, 니가타시
야마구치 히데키
부시장



일본, 후쿠시마현
가게야마 히로시
오사카 사무소장



일본, 아스카무라
모리카와 유이치
촌장



일본, 도쿠시마현
가와구치 마사미치
농림수산부 임업비약국장



일본, 고료초
야마무라 요시유키
초장



일본, 가가와현
아사노 고지
상공노동부 차장



미얀마 외무성
Soe Han
정무국 동아시아 대양주과장



미얀마,
마그웨이 지방정부
Kyi Min
채무대신



일본, 나라현 의회
쓰부타니 도모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참가 지방정부간 의견교환 내용

1.지역의 인재육성과 산업지원

(1) 동남아시아의 창업지원(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빈곤가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제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실시. 현재 40그룹이 지방정부에서 자금을 제공받아 경식과 야채, 바틱직물 제작,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의 잠재력을 우선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사업내용을 고안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룹 수를 늘려 가려고 한다.

(인도네시아, 욱야카르타특별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새로운 주택건설을 지향하여 미니 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비엠허시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자치체와 NGO등으로부터 자금원조가 있으나 멤버 자신이 자금을 제공하는 일도 있다. 대상자의 선발은 그룹 내에서 실시되며 빈곤탈출과 슬럼을 해소하는 주택건축 계획 등이 심사되어 승인을 얻어 비로서 대여된다.

(베트남, 비엠허시)

○21개 생활협동조직(COOP)과 5개 NGO가 50억 차트까지의 대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도 지역주민에 대하여 매년 500억 차트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미얀마, 마그웨이 지방정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립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기업은 인재' 라고 하듯이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와 우수한 후계자를 육성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일본에서도 욱야카르타특별주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동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 나라현 의회)

(2) 클라우드 파이낸스

○최근 젊은 층의 창업 사례에서 클라우드 파이낸스(인터넷을 통한 자금조달)로 자금을 충당하여 사업을 실시한 예가 있다. 사업내용은 공민관을 개수하여 외국인용 숙박업체를 만들려는 것. 투자자는 전국의 아스카무라 팬들이며 관광과 직결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일본, 아스카무라)

2.지역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

(1)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지원

○농작물의 가치를 높여 판매하는 직거래 판매소의 충실과 가공품을 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두가지를 추진. 가공품을 '아스카 브랜드' 로 하여 간토권에의 판매를 지향하고(지역외 판매) , 지역 내에서는 '첼린지 샵' 이라는 소규모 부스를 마련하여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지역내 판매).

(일본, 아스카무라)

○니가타시는 일본 내에서 가장 수전이 많은 정령지정도사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공, 판매를 포괄하는 6 차산업을 추진하고 거점이 되는 농산물의 가공지원센터를 만들어 직거래판매소의 정비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니가타시)

(2) 새로운 발상에 의한 지역진흥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폭제로서 현대 아트를 활용하여 3년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를 개최. 먼저 해외에서 소개됨으로써 일본인이 주목하게 되고 2번째인 작년에는 백만명이 방문하였다. 이 예술제에서 섬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매력 중에 하나인 '떡거리' 를 제공하고 있다. 밖에서 들어온 것(현대아트)에 전통적인 지역의 (떡거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가가와현)

○과소화에 직면해 있던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초에서는 정보통신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해외의 예술가가 거주하며 활동하면서 지역민들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를 실시하고 있다. 예술과 우수한 정보통신 환경을 융합하여 자유자재로 전세계와 정보를 입수,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교류가 유명해졌다. 지금은 IT 기업과 레스토랑 등도 입점하여 마을의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가미카즈초에서는 기온차가 큰 산간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예쁜 색깔의 잎사귀를 요리의 '장식재' 로서 판매하여 판로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수입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자원을 축으로 지역 비즈니스를 창출한 유니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도쿠시마현)

(3) 지역과제의 실천사업

○기간산업인 농업은 동일본 대지진 전의 80%까지 회복. 원전사고로 인한 풍평피해가 아직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쌀의 전수검사를 비롯한 농산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TV텔런트를 기용한 현 생산 농산물의 홍보를 통해 이미지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현 생산 곳감은 유명하여 간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원전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거래가 끊기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작년에는 농가의 노력으로 시험적으로 일부 재개할 수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현)

○나라현은 주거지 면적이 좁고, 당일치기 관광이 많다는 과제가 있다. 현재 9가지 분야에서 산업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 일류호텔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와 토지를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보존도 실현하는 나라가 지닌 강점을 살린 산업진흥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 나라현)

○고료초는 양말산업이 왕성하나 저렴한 외국제품에 밀려 쇠퇴경향에 있다. 현재도 양말 생산액은 일본 제일로 '양말 디자인 컨테스트'의 실시 및 현 생산 면과 도미오카 제사장의 생사를 결부시킨 양말을 기획하는 기업 등에 고료초 차원에서 후원하고 있다.

(일본, 고료초)

(4) 새로운 관광산업

○ '아스카 뉴 투어리즘협회'에서는 작년부터 수학여행으로서 약 4명씩 한 농가에 숙박하는 '농가 민박'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로부터의 방문객도 있고 올해는 이미 국내 2000박, 해외 1000박을 달성하였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초소형 2인승 전기자동차로 아스카무라를 주유하며 체험하는 'MICHIMO'라는 사업을 개시하였다.

(일본, 아스카무라)

3. 산업발전과 문화의 보존

(1) 무형문화로서의 전통적인 육아 및 교육의 전승

○유적을 보호하고 지방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2년 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행정이 부모에게 지역의 문화와 자장가를 비롯한 전통적인 육아시범을 지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욱야카르타특별주)

○출생시부터 다양한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다양한 자장가가 있어 '어머니의 자장가 속에서 어린이는 성장한다'라는 말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베트남, 푸토성)

(2) 지역의 독자적인 교육

○광역자치체와 기초적 자치체의 역할을 아울러 가진 정령지정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교육위원회와 산업부문이 협력하는 형태로 숙박형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에그리컬처 팜)을 올해 6월에 개설하였다. 어린이들이 농업을 접함과 동시에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일본, 니가타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시부타이 고분 앞에서 관광 자원봉사를 체험하는 활동을 작년도부터 도입하였다. 아스카무라에 대하여 공부할 뿐만 아니라 방문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아스카무라)

(3) 유적의 보호와 개발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신사와 사원 등이 대부분 파괴된 시기가 있었는데 1970년대에는 그 잘못을 인식하고 시정하려 하였다. 1990년대부터 수많은 유적이 복구되어 현재는 국가사업으로서 홍왕조 주변유적의 복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가지와 공업단지를 개발할 때 특별한 유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베트남, 푸토성)

○미얀마에서는 중앙정부가 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지방정부가 그것을 실시하고 있다. 미얀마 사회에서는 불교의 승려가 주민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승려를 통해 주민들이 문화유산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하거나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역사유산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물관이나 대학에서도 고대의 문화를 가르쳐 국가의 전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얀마, 마그웨이 지방정부)

총괄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오전의 실무자 토의와 오후의 수장토의를 통해 다양한 화제가 대두되었으나 새삼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참가한 각국 지방정부 여러분들이 착수하고 있는 과제는 GDP의 격차나 경제발전의 격차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 같은 시대에 유사한 과제에 직면하여 유사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다방면에 걸친 사례가 소개되어 각 지역으로부터 배울 만한 점이 있었다. 특히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지역문화의 보존, 교육 등 해외의 사례에 관한 일본측 참가자로부터의 질문 등 크게 참고가 될 만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참가 지방정부는 역사적 유적을 보유한 지역이 많아 지역의 독자적 장점과 전통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제도 공통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문화 보존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자세에 감명을 받았다.

다른 참가자들의 사례를 듣고 '도움이 된다'고 느낀 점을 각자의 지역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물론 자유다. 앞으로 실제로 각지를 방문하여 교류를 돈독히 하면서 최첨단 방향을 배움으로써 좀더 매력적인 아시아, 좀더 매력적인 지역을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차원의 산업을 테마로 한 국제교류는 좀처럼 이미지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은 매우 결실있는 것이었다고 각 참가자들이 실감한 것 같다. 아낌없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진지하게 귀기울여 주신 참가 지방정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가지방정부	중 국 : 산둥성 한 국 : 충청남도 일 본 : 미에현, 와카야마현, 나라현, 미야기현다가조시, 나라현덴리시, 나라현가시하라시, 나라현이카루가초, 나라현시모이치초
강 사	모리치 시게루 정책연구대학원대학·정책연구센터 소장

강사 강연



모리치 시게루 정책연구대학원대학·정책연구센터 소장

1960년대에 고도성장기를 맞이한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과 지역간의 소득격차 축소를 동시에 달성한 보기드문 나라다. 당시의 공단에 의한 관제 BOT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를 사용한 사회자본정비는 지역구조를 크게 변혁시킨 일본형 지역발전 모델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에는 고용자 소득에서는 그다지 격차가 확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격차의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경제의 글로벌화에 의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상업지의 셔터거리화와 고령화, 인구감소의 지역격차이며 장래의 전망에 관한 지역격차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정책대응이 가능한지가 지방 창생의 과제다.

일본은 이미 인구감소사회로 들어섰으며 인구감소에 의해 관민의 수입이 줄고 리스크 대응력과 성장의욕이 감퇴하여 그것이 기술혁신의 위축과 소비의 감퇴를 야기시켜 관민의 수입이 더욱 준다는 악순환을 경험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번영을 국내 각 지역으로 내부화한다, 여성, 고령자,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다, 생산성과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한다는 방책이 고안되어 이미 정책화되어 있는데 신속한 실행이 요구된다.

인구감소사회에서의 지역 만들기에서는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지가 요점이다. 또한, 지역력의 집결, 공공투자와 지역정책의 정합, 아시아의 성장을 지역에 흡수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아시아 각국은 국내에 큰 소득격차가 있어 지금은 고소득자는 제품과 서비스의 고기능성과 신뢰성, 디자인, 안전성이 요구되며 일본제품의 마켓은 아시아에 널리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는 일본의 지역자원의 우위성을 살려 일본 브랜드 창출의 잠재성을 유지하고 지역 브랜드를 확립하여 아시아 각국에서의 지명도를 올리는 것이 과제다.

지역 만들기 위해 몇가지 제안하자면 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개성적인 상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체의 IT를 활용한 물류의 백업과 계열기업의 지역화 전개와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아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체가 주도하는 젊은 세대에의 우대책 외에, 연선이 활성화하면 철도회사의 비즈니스도 활성화한다는 시점에서 철도회사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의료와 복지에 대해서는 시설 수가 부족해지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므로 대규모 병원과 지역 의사와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도성장기에서 60년이 지나 일본은 머지않아 인프라의 고령화를 맞이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배우는 앞으로의 과제는 노후화 인프라의 누적으로 인한 회복의 장기간화, 세부 부채의 결함검지, 자치체의 전문가 부족 등 3가지다. 자치체의 기술자 부족에 대해서는 자치체간의 연계와 국도 멘테넌스의 포괄위탁 등의 새로운 방법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장토의 참가자 여러분



중국, 산둥성
REN, Chaorong
중국 공산당위원회
변공청 부순시원



일본, 덴리시
나미카와 겐
시장



한국, 충청남도
HEO, Seung Woog
부지사



일본, 가시하라시
스기타 고지
종합정책부장



일본, 미에현
다나이 류
고용경제부 관광·국제국 차장



일본, 이카루가초
이케다 요시노리
부초장



일본, 와카야마현
노다 히로요시
기획부장



일본, 시모이치초
스기모토 다쓰아키
초장



일본, 나라현
미즈모토 마사아키
마을조성 추진국 차장



일본, 나라현 의회
이오카 마사노리
부의장



일본, 다가조시
기쿠치 겐지로
시장

참가 지방정부간 의견교환 내용

1. 재해에 대비한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

(1) 재해에서 얻은 교훈을 살린다

○다가조시는 쓰나미의 경험이 거의 없어 주민들에게 피난이라는 의식이 없었다. 쓰나미 경보를 주지시키기 위해 유선 방송시설이 13기 있었는데 지진때문에 기능하지 않았고 홍보 카드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진 후 바로 시내 전역에 53기의 유선 방송시설을 설치하였다.

(일본, 다가조시)

○3년 전의 기이반도 홍수피해 시 시정촌은 현장 대응에 쫓겨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현에 전달하는 것이 곤란했다. 그것을 교훈삼아 재해시에 현의 직원이 중심 역할을 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미 현 직원을 담당 시정촌으로 파견하여 지역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담당 지역에 파견되어 방재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 와카야마현)

(2) 재해대책에 대한 다양한 시점

○관광객도 재해약자다. 재해 시에 국내외로부터의 관광객에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현 내 자치체와 검토 중이다.

(일본, 미에현)

○재해 시에는 자주피난 등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킨다는 의식도 중요하여 그것을 주민들에게 반복하여 호소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지구분배도 포함하여 재해에 강한 지역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 시모이치초)

2. 문화와 역사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만들기

(1) 지역자원과 행사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광소비를 증가시킬만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이세신궁의 식년천궁, 올해는 구마노고도의 세계유산등록 10주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자치체와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수용체제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방문객은 작년보다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일본, 미에현)

○기타야마무라의 전통산업인 뗏목타기를 30년 전에 관광용으로 부활시켰는데 여름에는 만석이 될 정도로 관광객들로 호평을 얻고 있어 마을의 고용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긴키지방은 옛 문화재가 많다는 특징을 살려 관광객 증가로 연결시키려 한다. 예를 들면 고야산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고 있어 종교적인 분위기와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다고 구미인들을 중심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구마노고도와 아울러 마을의 평온의 성지로서 활성화시켜 가고자 한다.

(일본, 와카야마현)

○이가지역을 중심으로 닌자 드라이브인과 닌자 코스프레, 닌자 전차 등의 닌자를 테마로 한 '닌자 패키지'를 홍보하고 있다. 관계업자와 시정 등과 협력하여 해외로 발신하고 있으며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관광객들에게 인기.

(일본, 미에현)

○나라 마라톤은 전국에서도 굴지의 인기로 해외로부터도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 마라톤 참가자에게 다음에는 마을의 다른 곳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홍보해 가겠다.

(일본, 덴리시)

(2) 지역 만들기에서의 각종 활동

○역의 연속 입체교차사업과 더불어 역 북측에 도서관과 육아지원센터 등의 복지시설을 정비하여 국내 굴지의 음향효과를 갖춘 다가조시 문화센터와 연계한 도호쿠지방 제일의 문화교류 거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다가조시)

○일본 PFI·PPP협회로부터의 제안을 받아 일본에서 첫 시도인 '관광자원창조 관민연계사업부회'를 발족시켰다. 이 사업부회는 고용창조를 통한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관광자원과 관광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조사와 제안을 실시하고 있다. 관광업계의 전문가가 멤버로 가담하여 제안뿐만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방책에 대한 협력을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가시하라시)

○작년에 처음으로 관광협회가 생겼다. 니우가와카미 신사의 3사당을 관광하고 지역산업으로는 '산보'와 전국제일의 판매력을 자랑하는 나무젓가락이 유명하며 일본 최초로 상업용 어음이 생겼다는 오랜 마을의 역사를 활용하여 관광진흥을 추진해 가려한다. 현재는 요시노 삼나무를 살려 가구제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의 축을 이루는 감을 활용하여 곳감을 만드는 체험형 관광의 실시를 검토중이다.

(일본, 시모이치초)

○재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시책으로서 '미에 여행 여권'을 만들어 배부하고 있다. 스탬프렐리로 현내 각지를 즐겁게 돌며 미에현의 기념품이나 식품을 추천하여 증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여권은 30만권을 넘는 상황이다.

(일본, 미에현)

(3) 정보제공에 대하여

○덴리시에는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이 많으나 마을의 활성화와 산업으로 연결시켜 갈 만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고 마을 자체의 홍보도 불충분하다. 제공력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소비를 촉진하여 마을 전체를 활성화시켜 가려 한다. 먼저 눈에 띄는 거점으로서 정보 제공력이 있는 제작자와의 협업을 통해 역앞 광장의 공간을 디자인하여 시내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시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덴리시)

○현 내의 각지가 각 지역을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과 시정촌이 연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 이카루가초)

○구미인들은 자전거나 노르딕워크 등 스포츠와 연관시켜 지역을 도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해외 관광객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Wi-Fi환경과 인터넷상의 관광지로서의 평판이 중요하여 Wi-Fi환경의 준비를 현 전역에서 추진해 가려 한다. 또한, 기이반도 3현의회 교류회(미에현, 와카야마현, 나라현)에서는 내년도의 고야산 개창 1200년을 계기로 Wi-Fi정비를 함께 추진해 가기로 합의했다.

(일본, 나라현의회)

3.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지역 만들기

(1)협력하여 실시하는 지역 만들기 사례

○주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타운 미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산관민학이 일체가 되어 고령자가 수월하게 농작업을 하기 위한 ‘라쿠라쿠 농법’이나 몸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라쿠라쿠 체조’, 전통일륜차를 개발하고 있다. 각 지구에 맞는 사업을 주민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은 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시모이치초)

○매년 10월에 ‘만요 축제’를 실시하고 있다. 원래 민간의 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주민의 ‘스스로 한다’는 의식이 담긴 뜻깊은 것이다. 만요행렬에는 지역의 기업들도 참가하여 민간과의 연계가 진척되고 있다.

(일본, 다가조시)

○나라현에서는 헤조큐 유적에서 나라공원, 와카쿠사야마로 이어지는 ‘오미야도오리’ 도로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을 얻어 길가에 꽃을 정비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주민과 협동하는 지역 만들기에 관한 ‘오미야도오리 저널’을 10월에 창간하였다.

(일본, 나라현)

(2)행정·민간의 협력체제를 목표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 만들기는 주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은 지원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 아래 ‘협동하는 지역 만들기 조례’를 책정하였다. 10년 후를 목표로 주민의 활동거점과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을 실시해 갈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 책정은 어느 정도 성숙한 사회가 되면 주민은 지역 만들기과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을 타파하려는 관점도 있었다.

(일본, 이카루가초)

○민간부문이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역앞 재개발과 같은 하드 정비를 하는 가운데 노점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중간역할과 메뉴의 다언어화를 위한 유학생과의 중간역할 등 새로운 행정의 역할이 생겨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매니지먼트를 실시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덴리시)

○행정이 새로운 시책을 실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복지와 교육의 충실뿐만 아니라 현역 세대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지역의 리더를 통해 이해하는 것. 두번째는 행사 등을 통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폭을 넓혀가는 것. 세번째는 행정직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활동 제안을 사업실시로 연결시켜 ‘행정은 함께 활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일본, 덴리시)

(3)광역내에서의 협력체제

○도시계획은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나 작년부터 현도 함께 추진할 것을 표명하여 지금은 현도인 와카야마시와 함께 지역 만들기과 도시계획을 개시하고 있다. 상호 시설과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현과 시의 업무를 원활히 하여 시민, 현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갈 것이다.

(일본, 와카야마현)

○이전의 지역 만들기는 시정촌의 임무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구상단계부터 현도 시정촌도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자산을 유효 활용하는 것도 시야에 넣으면 보다 좋은 지역 만들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발상 아래 현과 시의 포괄협정을 개시하였다. 앞으로는 이것을 현 전체로 전개해 가고자 한다.

(일본, 나라현)

○가시하라시와 아스카무라가 연계하여 내각부의 ‘지역활성화 모델케이스’ 인정을 받았다. 새로운 역 설치를 염두에 둔 의대 캠퍼스 주변정비와 빈집을 활용한 고령자 보살피기 등을 앞으로 모델 케이스 사업으로 추진해 가려 한다.

(일본, 가시하라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이라는 투어 패키지를 도쿄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 단, 현재는 이카루가초에만 대상을 설정한 것으로 앞으로는 다른 시정과의 연계, 그리고 나아가 나라현 전체를 대상으로 사철 관광상품 등을 개발할 수 있을지 어떻게 모색해 가려 한다.

(일본, 이카루가초)

○다가조시 근린의 2시 3정이 1단위가 되어 소방 등 각종 행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 만들기에서도 이 단위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각 지역의 축제기간을 이용한 선보기작전, 지역행사 홍보 연계 등 다면적으로 협력,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다가조시)

○해외에서는 나라 전체의 이미지를 인상짓는 광고를 만들어 브랜딩을 하는 나라도 있다. 대상별로 일본단위 또는 킨키지방 단위로 연계하여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가이드북에서도 지역별이 아니라 지역을 초월하여 흥미나 관심에 맞는 정보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보다 광역적으로 나아가 국가 전체 또는 아시아 전체로서도 전개하는 흐름이 형성되면 전세계인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본, 덴리시)

4.한국, 중국의 과제와 의견

(1)한국 충청남도의 견해

○충청남도는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자치체의 하나였는데 지역만들기가 추진하는 300마을에서는 자살자가 1명뿐이었다. 지역 만들기는 복지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역의 활력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역 만들기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행정중심에서 탈각하여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해 갈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찌기 행정은 어느 지역이나 일률적인 지원을 실시했으나 현재는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단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를 초월하여 모든 부서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부서간의 사업연계를 추진하려고 한다.



○충청남도는 대부분이 농촌이다. 농촌과 농업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선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배움은 물론 교육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

(2)중국 산둥성의 견해

○관광지에 매력이 있는지 어떤지는 선전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브랜드력을 기름과 동시에 홍보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면에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정비하는 것과 관광객의 비용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광 홍보에 있어 여행사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여 행정은 여행업계와 기업과의 중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괄



모리치 시게루 정책연구대학원대학·정책연구센터 소장

재해에 대하여 충분히 상정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응하는 것과 상정 외가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시의 용지확보와 물류에 대하여 방재계획에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있어 지역 만들기에는 지명도가 중요하다. 국내외에 대하여 지역을 보다 광역적인 지역으로 본 매력 홍보와 흥미를 자극할 만한 캠페인이 중요하다.

지역의 농산품을 해외 마켓으로 전개하려면 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가공하여 브랜드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적인 맛뿐만 아니라 수출국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문화, 역사, 관광 등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한번 방문한 사람에게 지역내의 다른 곳이나 다른 계절에 다시 방문하고 싶게 하는 정보 제공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첫번째 방문과 두번째 이후와는 관광객의 행동 패턴이 서서히 변화하여 같은 나라의 관광객이라도 출신지역에 따라 매력을 느끼는 것이나 취향이 다르다. 상대방의 시점에 서서 요구하는 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광객의 재방문을 계기로 주민들이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중요하다.

산둥성과 충청남도에서는 중국,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흥미로운 선진적 활동을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참가하신 여러분께서는 이 토의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각 지역의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참가지방정부	중 국 : 안후이성, 산둥성 등잉시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한 국 : 경기도,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경상북도 베 트 남 : 투아티엔 후에성 일 본 :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돗토리현, 나라현
	강 사 : 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대표·정부인정 관광카리스마

강사 강연



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대표·정부인정 관광카리스마

각 지방정부의 리저널 리포트를 보고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장래상이나 지향해야 할 모습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목적으로서의 이념이 필요하며 이념 속에 장래상과 가치, 사회적 사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수치 목표와 전략, 전술을 세울 수가 없다. 또한, 지역의 종합계획에 있어 관광의 자리매김이 애매하거나 나중에 만든 관광계획과의 정합성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통일된 방향성을 갖기 위해 결승점을 설정하여 그 미래상을 위한 전략을 세운 후에 수단으로서의 전술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시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농림어업과 전통적 산업 등과 연계를 취해 관광객이 사용하는 비용을 지역내에서 순환시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속시키는 것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진다. 또한, 지방정부로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 만이 아닌,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세수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한 엔진화가 요구된다.

세번째는 마케팅에 임하는 의욕이 없다는 것이다. 마케팅이란 계속 판매해 가기 위한 체계 구축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실시할 구조와 조직이 필요하다.

네번째는 관광객에게 여행지로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목적지로서의 필연성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할지 대상을 정한 후에 어떻게 상품화할지를 의식해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는 인재육성의 중요성이다. 특히 관광 가이드에 대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의식함과 동시에 지역의 장점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역의 장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광산업은 많은 산업분야의 지역고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관광진흥에 종사하는 직원은 산업연관표를 이해하여 지역경영의 시점을 가지고 산업연계에 의한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원인을 규명한 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실패를 자신들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없다. 잘 진행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양 면을 검증하여 좋은 점은 신장시키고 나쁜 점은 방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의 성패는 순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아야 할 관광객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외부 평가를 받는 것도 필요하나 관광객들로부터 직접 평가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장토의 참가자 여러분



중국, 안후이성
LU, Xiaomei
국제우호도시과장



한국, 경상북도
HONG, Seog Pyo
국제 비즈니스과 계장



중국, 둥잉시
CHEN, Xinjun
여행국 부국장



베트남,
투아티엔 후에성
NGUYEN Dung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Roslan Bin Ibrahim
개발담당주 부대신



일본, 야마나시현
요코우치 쇼메
지사



한국, 경기도
PARK, Gyu Cheol
관광과 계장



일본, 나가노현
노이케 아키토
관광부장



한국, 공주시
HONG, Gi Seok
관광과장



일본, 시즈오카현
난바 다카시
부지사



한국, 서산시
KIM, Jung Kyum
문화관광과장



일본, 돗토리현
모리타니 구니히코
문화관광 스포츠 국장



일본, 나라현
아라이 쇼고
지사



일본, 나라현 의회
하리 마유미
관광진흥특별대책위원회위원



일본, 나라현
후쿠이 요시나오
관광국장

참가 지방정부간 의견교환 내용

1. 지역의 매력과 자원을 살린 관광지 만들기

(1) 관광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

○관광도시는 관광을 소재로 한 지역발전을 원하고 있으나 경제적 수단으로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익 추구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는 마음과 관광객의 솔직한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일본, 나라현)

○공민연계(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가 핵심이며 지역의 매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향상된 결과가 '지역의 브랜드화'다. 질 높은 서비스가 관광객들에게 선택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으로서 질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가야 할 것이다.

(일본, 나라현)

○야마나시현에서는 후지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현 내 각지로의 관광객 유치 및 숙박체제형 관광지로 전환하여 재방문객 획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야마나시현)

(2) 지역의 참가와 주민의식

○지역의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관광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투아티엔 후에성)

○행정은 관광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염두에 두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 스스로가 얼마나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며 행정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경기도)

○사회 전체가 지역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논어의 ‘가까운 사람이 기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라는 이념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지역의 매력이 되어 그것을 관광객 유치로 연결시켜 가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시즈오카현)

○에코 투어리즘의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매력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익스커션으로 다양한 코스의 투어를 실시하여 지금은 실제로 상품화라는 형태로 뿌리내려 있다.
(일본, 돗토리현)

○경제발전을 촉진시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민일체가 되어 환대형 관광을 확립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안후이성에는 황산과 구화산 등 유명한 자연유산과 중국의 8대 요리 중 하나인 안후이 요리와 전통공예품, 역사 등의 관광자원이 있다. 그 관광자원을 살려 재방문률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활동으로서 참가형 관광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 안후이성)

2.우호도시와의 지역연계와 관민연계에 대하여

(1)인재육성을 통한 관광지 조성

○나가노현에서는 ‘세계 수준의 산악고원 관광지 조성’이라는 사업을 개시하고 있어 관광사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매니지먼트를 중시하는 관광지 조성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중핵적인 젊은 인재육성을 위한 ‘신슈 관광지 조성 매니지먼트 학원’를 개강하고 있다.
(일본, 나가노현)

(2)지역연계와 관민연계

○2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는 투아티엔 후에성에서는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같은 세계유산을 가진 인근의 광남성 및 기업과 연계하고 있다. 지역간 연계 및 관민연계에 있어 상호 우호적이고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다.
(베트남, 투아티엔 후에성)

○관광촉진에 있어서는 먼저 지방정부가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런 후 민간기업이 참획하게 하고 시장의 개척과 다른 지역이나 기업과의 연계 및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해 간다.
(중국, 둥잉시)

○연계에는 지역간의 연계, 지역내 관민의 연계, 지역주민과의 연계 등 3종류가 있는데 연계함에 있어서는 역시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된다. 행정의 역할은 조직을 정비하고 환경정비,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인데 민간과 행정의 상호 보완관계를 구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지역의 관광진흥에 있어서 행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공통된 과제라 할 것이다.
(일본, 나라현)

3.해외로부터의 관광객 유치, 인바운드의 촉진

(1)인바운드 촉진을 위한 각 지역의 활동

○돗토리현은 두개의 공항과 하나의 항구를 가지고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에 가깝다는 편리함을 살려 ‘국제 리조트 돗토리 플랜’을 책정.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내걸어 국제 전세편과 크루즈선 유치 등의 인바운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연계하여 에코투어리즘의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돗토리현과 말레이시아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다.
(일본, 돗토리현)

○서산시에서는 2015년말에 대산항과 중국 산둥성 간의 국제여객선 취항을 예정하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서산시)

○공주시에서는 인바운드의 추진으로서 농촌체험과 도예체험 등의 오더메이드형 체험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 투어리즘을 유치하고 있다.
(한국, 공주시)

(2)인바운드를 추진하기 위한 요점

○인바운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탐세일즈가 중요하다는 것. 두번째는 지역연계. 야마나시현에서는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후지산’을 컨셉으로 주변의 시즈오카현, 가나가와현과 연계하여 지역을 선전하고 있다. 세번째는 외국의 관광관계자, 여행관계자 등의 키피슨을 대상으로 한 현지시찰 투어(팝트립)의 실시다.
(일본, 야마나시현)

4.광역적인 연계를 통한 관광진흥에 대하여

(1)공통의 테마와 컨셉을 통한 연계

○나가노현에서는 트래킹이나 사이클링 등 이동 자체를 즐기는 액티비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NAGANO 모빌리티’에 착수하였다. 일본 전체가 이 테마로 전개했으면 한다.
(일본, 나가노현)

○야마나시현에서는 ‘후지산’을 컨셉으로 시즈오카현, 가나가와현과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Wi-Fi환경의 정비 등에 착수하고 있다. 장래적으로는 3현이 공통 관광루트와 프로젝트를 발신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 야마나시현)

(2)개성화된 관광지의 매력을 통한 연계

○관광은 그저 지역적인 연계로 홍보하기보다 각 관광지의 본질을 확실히 하여 홍보한다는 점에 있어서 개성화시킬 만한 관광이어야 한다. 관광지의 개성과 관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계하려고 서로 배우는 것이 관광진흥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나라현)